| 현불 논단 |

코로나19 공포, 그 극복의 길



홍사성
계간〈불교평론〉 주간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
죽음의 공포에 대한 저항 그려
코로나19 한국 · 오랑 상황 겹쳐
확진자 급증엔 신천지 영향 커

전염병 창궐 베실리 찾은 붓다
500여 제자와 도시 청소 나서
공포 이긴 주민들 동참해 극복
보건수칙 지키며 공포와 싸우자

카뮈의 소설 〈페스트〉는 죽음의 공포 앞에 인간이 어떻게 저항하는가를 보여주는 명작이다. 알제의 해안 도시 오랑이 페스트균에 감염되자 정부가 이 도시를 봉쇄했다는 가정을 전제로 펼쳐지는 소설은 죽음과 공포, 이별과 절망 같은 비극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모습을 숨 막히게 그려낸다.

소설은 4월 어느 날 아침 주인공인 의사 리유가 진찰실을 나서다가 층계참 한복판에 죽어있는 쥐 한 마리를 목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인구 20만명의 조용한 도시 오랑에 페스트가 퍼진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대혼란에 빠진다. 장례를 치르기는커녕 쓰레기 소각하듯 시체를 처리해야 하는 극한에 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도피, 체념, 반항 등 세 가지다.

기자 랑베르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도망치려고 한다. 신부 파눌루는 신이 내린 형벌이라면서 신의 뜻에 따르자고 설교한다. 반면 리유를 비롯한 사람들은 '침묵하는 신만 쳐다보는' 대신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보건대를 조직하고 있는 힘을 다해 반항하며 페스트와 싸운다.

카뮈가 소설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운명에 대한 윤리적 선택인 '반항'이다. 극한의 공포와 불안일수록 저항으로 극복해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페스트〉를 읽다보면 코로나19로 공포의 도가니가 된 우리나라 상황이 겹쳐진다. 최초 감염자가 생긴 이후 두 달이 채 못돼 감염자수는 5천명이 넘어섰다. 많은 국가들이 감염을 우려해 한국에서 온 여행자들의 입국을 막고 있다. 나라 전체가 소설 속 오랑시처럼 봉쇄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신흥교파인 신천지교회의 밀착접촉 예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세시대 흑사병 창궐을 막기 위해 성당에 모여 기도하다가 전염이 확산되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불교의 한 경전(〈증일아함〉 32권 역품)은 상업도시 베살리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불교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여준다. 경전은 이 도시가 '귀신이 병을 일으켜 죽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사람들은 얼굴과 눈이 누렇게 되어 3, 4일 만에 죽는 자도 있었다'고 적고 있다.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안거 중임에도 500명의 제자들과 왕사성을 떠나 재난지역으로 들어갔다. 베살리에서 부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었다.

"삼보는 우리를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시니 삼보에 진심으로 귀의하면 성 안의 모든 재앙이 없어지리라. 두발 가진 사람도 안온을 얻고 네발 가진 짐승도 그러하고, 길을 가는 이도 행복하고 길을 오는 이도 또한 그러하리라."

빠알리 경전 소부 〈보배경〉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전한다. 부처님과 제자들을 발우에 물을 담아 뿌리고 청소를 했다. 마침 비가 내려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갔다. 공포에 떨던 사람들도 나와서 거리를 청소하고 부처님을 모셨다. 그리하여 공포의 도시 베살리는 평화를 되찾았다.

수많은 의료진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감염병과 싸우는 모습은 베살리로 향하던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이런 행동에서 억누를 수 없는 희망의 의지를 본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회피하거나 체념할 것이 아니라 보건 수칙을 지키며 적극적 방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일상의 평화는 바이러스 공포와 싸워 이겨야만 누릴 수 있는 선물이다.

社 說

연등회 연기는 국민적 여론이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3월 5일 기준 확진자는 6천명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는 오는 4월 본격적으로 진행될 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를 비롯한 봉축행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4월 30일로, 1975년 공휴일로 지정된 이래 가장 빠르다. 45년간 4월의 부처님오신날이 처음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부처님오신날에 한 주 앞서 매년 치르던 연등회도 4월 24~26일로 정해졌다.

분명 연등회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불교계가 쉽사리 봉축행사 연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리 행사 연기를 결정했다가 4월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되면, 불자들의 지탄이나 행정 변화로 겪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연기를 결정하지 않고 시일을 보내다 4월까지 이 사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불교계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지금 시점에서는 최고의 결과가 무엇인지보다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봉축행사를 연기해야 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윤4월로 봉축행사를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월초파일과 윤달의 의미가 큰 불교계에서 찾은 대안이자 지혜다. 물론 윤4월까지 지금의 코로나19가 해소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봉축행사 연기는 지인과의 모임, 외출, 종교계의 집회나 행사까지 자제하거나 취소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의 뜻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특정 교단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전 국민의 손가락질 받는 이유를 되돌아볼 때다.

공익사업 지원센터, 시대적 과제

사회 공공영역 확대에 맞춰 불교계의 대응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에 관련된 종합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포교원이 최근 〈사회 공익사업 참여 포교방안 조사연구 보고서〉를 펴낸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사찰의 공익사업을 통한 포교전략이 두루 담겼다. 그동안 불교계는 사회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공익사업 분야에서 기독교계의 다양한 접근에 비해 뒤늦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 사회의 공공분야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복지정책은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비영리 육성 정책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는 대중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해석하고 답을 줄수 있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려면 공공영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종교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 대중의 불안과 생존위기와 같은 고통에 무감각하고 응답하지 못한 종교는 쇠퇴하기 마련이다. 사찰은 사회와 유리될 수 없고, 공공영역과도 무관할 수 없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공공영역 참여 방안으로 비영리단체, 법인 등 사회공익사업 공모를 위한 단체 설립과 자원봉사시스템 활용과 지속 가능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중 공익사업 지원센터는 종단 차원에서 보다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시급한 과제다. 앞으로 확대되는 공공분야의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불교계가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원센터 설립과 함께 정확한 정보공유를 통해 일선 불교계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봉사자의 관음 미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자고 일어나는 속속 늘어서는 이 위기의 상황에 임상 현장인 병원은 더더욱 삼엄한 분위기가 감돈다. 우선 병원에 들어가려면 문진표를 작성해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을 확인받은 후에야 가능하다. 불교법당도 예외가 아니라서 이미 2월 초부터 포교 환경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다. 20여 봉사자들도 일을 중단하고, 한명의 봉사자가 법당 문을 열고 닫는 일만 지속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발병 당시 서울의 한 시립병원 지도 법사로 활동할 때 만난 환자가 떠오른다. 환자들이 거의 퇴원해 병실이 많이 비었고 타종교 기도실도 문 닫고 휴관에 들어갔다. 나도 불교 법당 문을 당분간 닫을까 고민했다. 그 와중에 한 환자분이 불교 법당을 방문했다. 양쪽 다리관절 수술 후 얼마 안돼 메르스 사태가 터지다보니 퇴원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애매한 입장이었다. 가족 방문이 불허돼 고립된 상황이지만 용기 내어 퇴원을 미루고 재활을 받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스님 병원 법당이 있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부처님 전을 향해 연신 합장 기도하며 천진불처럼 웃는 환자의 얼굴을 보면서 그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없어 법당문을 계속 열었다. 환자는 매일 보행기에 의지한 채 법당에 내려와 부처님께 참배하고 한참 자신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서 심신의 상실감을 달랬다. 입맛이 떨어져 힘들 때 마침 공양물로 들어온 마른 김으로 입맛을 돌린 후 "부처님 덕분에 살았어요"라고 하던 말이 귀에 지금도 맴도는 듯하다.



그림 · 최주현

이런 경험이 있던 터라 불교 법당 문을 닫기가 쉽지 않았다. 나는 봉사자 한 분에게 불교 법당 문 여는 일을 부탁했다. 봉사자는 흔쾌히 승낙했다. 정초기도가 끝나고 법당서 만난 봉사자는 "고맙다"는 나의 인사에 오히려 손사래를 쳤다. 그리고 예전에 한 노보살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노보살은 한국전쟁이 터지고 절로 피난 했는데 그곳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처님께 마지를 올렸단다. 그 결과 모두가 무탈하게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다고 했다. 봉사자는 그러면서 "스님, 그 보살님이 생각나면서 저도 그런 행을 요즈음 흉내 내고 있습니다"라며 빙그레 미소 지었다. 관음의 미소였다. 위기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병원 법당을 지키는 그 모습은 분명 관음의 모습이었다. 그의 말없는 행원에 그저 머리가 숙여질 뿐이다.

백의관음무설설(白衣觀音無說說)
남순동자불문문(南巡童子不聞聞)
병상록양삼제하(甁上綠楊三際夏)
암전취죽시방춘(巖前翠竹十方春)
백의관음은 설한 바 없이 설하고 남순동자는 들은 바 없이 듣네.
화병의 푸른 버들 항상 여름이고 바위 앞 푸른 대나무 온통 봄빛이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삼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 정 혜 인
총무원장 대행 : 법 광
원 로 원 장 : 혜일
율 원 장 : 무공
중앙선원장 : 도일
■ 원로원 : 혜정,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동안, 도불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산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동오
문화부장: 자명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율조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화광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무공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태산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송산
포교국장: 학산
국제포교원장: 천산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법철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명원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법안
호법국장: 지호
감찰원장: 정오
감찰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금산
감찰2국장: 인산
비구니회장: 지성
비구니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비구니총무부장: 금산
부회장: 도은
재무: 정해
교무:본각, 수정
교육: 보림,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해인
복지: 화광, 무연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현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법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울산종무원장: 법철
전남, 광주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청목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기자: 나윤하
사회부기자: 이근진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경남총림 봉곡사
제주총림 법련사

▣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 홍창석
고문: 설주성
수석부회장: 윤근
여신도회장: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기획대리: 나윤하
기획실장: 홍의현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 대학림
학 장 : 혜일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오,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 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50-1 (돈암동 83-2)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총무원장실 :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 02)511-1080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kr (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 주소 : jogyebuddhism@naver.com
samhwade@naver.com
samhwade@hanmail.net